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민수	직급	선임연구위원
		수산연구본부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외부전문가		오서연		전문연구원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국제행사 주최 ☐ 세미나, 교육, 훈련 ☐ 국제행사 참가 ☐ 기타 () 1) 국제 수산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산물 무역 대응방향 마련 세미나 및 현지 업계 간담회 개최 - KMI-UH(하와이대학) 공동세미나 개최 - 아메리카 사모아 선원 묘지 참배 및 아메리카 사모아 수산청 방문 - 스타키스트 공장 방문, 현지 (한인) 업계 간담회 개최 2) KMI-EWC(동서문화재단) 총장 면담 및 2025 NPAC 준비위원회 개최					
관련사업 (예산항목)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일반)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북극해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김민수	131,474	미활용	보너스 좌석 부족		
	마창모	58,977	미활용	보너스 좌석 부족		
	오서연	12,706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출장기간	2025.02.23.-03.02 (6박 8일)		출장지	하와이, 아메리카 사모아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2.23(일)	부산(16:10) → 인천(20:35) → 호놀룰루(+1 09:35)	항공 이동	KE1422 KE053		
	02.24(월)	호놀룰루	KMI-UH 공동세미나 개최 준비 및 개최	차량 이동		
	02.25(화)	오전 : 호놀룰루	하와이 동서문화재단 (EWC) 부총장 면담			
		호놀룰루(16:25) → 아메리카 사모아(21:20)	항공 이동	항공이동(HA 465)		
	02.26(수)	오전 : 아메리칸사모아	선원묘지 참배 및 아메리카사모아 수산청 방문	차량 이동		
		오후 : 아메리칸사모아	스타키스트 공장 방문			
	02.27(목)	오전 : 아메리칸사모아	수산청 방문	차량 이동		
		오후 : 아메리칸사모아	현지 한인 업계 간담회			
		아메리칸사모아(23:20) → 호놀룰루(+1 05:45)	항공이동	항공이동(HA 466)		
	02.28(금)	오전 & 오후 : 호놀룰루	KMI-EWC 2025 NPAC 준비위원회 개최	차량이동		
	03.01(토)- 03.02(일)	호놀룰루(11:40) → 인천(+1 17:45) → 부산(20:45)	항공 이동	KE 054 KE 142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목적I) 'KMI-UH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네트워킹 - (목적II) EWC 부총장 면담 및 관련 전문가 회의 - (목적III) KMI-EWC 2025 NPAC 준비위원회 개최 - (목적IV) 아메리칸사모아 선원묘지 참배 및 한인 간담회 개최, 스타키스트 방문					

	- (달성 정도) 당초 목적 달성 ○ 주요성과 - KMI와 하와이대학교(UH) 간 연구 협력 및 정책 교류 강화 - EWC 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KMI-EWC 협력 방향 논의 - 선원묘지 참배 및 한인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한인사회와의 협력 기반 강화 - 스타키스트 방문을 통해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 수집 - NPAC 세션 구성 및 공동 기획 관련 협의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출장 결과 성과 보고 반영 - EWC, UH, 스타키스트, 아메리칸사모아 한인회 등과의 논의 내용 정리 -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정책 방향성 검토 - 협력성과 공유 및 후속 논의 진행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한국 원양어업 및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 WCPFC 및 남태평양 국가와의 수산 협력 강화 방안 제안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02.23. (일) - 02.24 (월) KMI-UH 공동세미나 준비 및 개최																									
수행계획	□ (02.23 (일) 오후) KMI-UH 공동세미나 개최 준비																									
	- 참 석 자 : 이상협(UH 경제학부장), John Lynham (UH 교수), 김민수 선임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																									
	- 업무수행 내용																									
	· KMI-UH 공동세미나 개최 사전 준비																									
	□ (-2.24 (월) 오전&오후) KMI-UH 공동세미나 개최																									
	- 참 석 자 : 이상협(UH 경제학부장)(사회), John Lynham (UH 교수)(발표), Theresa Greaney(UH 교수)(발표), 김성진 前해수부장관 등(좌장), 김민수 선임연구위원(발표), 마창모 선임연구위원(토론), 장영태(인하대 교수)(토론), Kazumi Wakita(Tokai University 교수)(토론), 오서연 전문연구원(발표) 등																									
	- 업무수행 내용																									
	· KMI-UH 공동세미나 개최																									
	<table><tr><th>구분</th><th>시간(분)</th><th>행 사 내 용</th></tr><tr><td>등록</td><td>11:00~11:25</td><td>참가자 안내 및 등록</td></tr><tr><td>인사말</td><td>11:25~11:30</td><td>5' ◦김종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대독 예정</td></tr><tr><td>기조 발표</td><td>11:30~12:30</td><td>60'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수산업 환경변화 및 전망 - John Lynham(하와이대학 교수)</td></tr><tr><td>오찬</td><td>12:30~14:00</td><td>90' ◦고려원</td></tr><tr><td rowspan="3">발표</td><td rowspan="3">14:00~15:00</td><td>20' ◦미 실행정부 출범이 한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Theresa Greaney(하와이대학 교수)</td></tr><tr><td>20' ◦미 실행정부 출범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td></tr><tr><td>20' ◦수산 분야 신통상 규범(환경, 노동) 변화에 따른 남태평양 입어 정책 변화와 국내 원양어업의 대응 방향 -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td></tr><tr><td>종합 토론</td><td>15:00~16:30</td><td>90' ◦좌장 : 김성진 / 前해수부장관 등 ◦토론자 : KM 대표단, 하와이대학 교수 등 종합토론</td></tr></table>			구분	시간(분)	행 사 내 용	등록	11:00~11:25	참가자 안내 및 등록	인사말	11:25~11:30	5' ◦김종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대독 예정	기조 발표	11:30~12:30	60'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수산업 환경변화 및 전망 - John Lynham(하와이대학 교수)	오찬	12:30~14:00	90' ◦고려원	발표	14:00~15:00	20' ◦미 실행정부 출범이 한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Theresa Greaney(하와이대학 교수)	20' ◦미 실행정부 출범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20' ◦수산 분야 신통상 규범(환경, 노동) 변화에 따른 남태평양 입어 정책 변화와 국내 원양어업의 대응 방향 -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종합 토론	15:00~16:30	90' ◦좌장 : 김성진 / 前해수부장관 등 ◦토론자 : KM 대표단, 하와이대학 교수 등 종합토론
	구분	시간(분)	행 사 내 용																							
등록	11:00~11:25	참가자 안내 및 등록																								
인사말	11:25~11:30	5' ◦김종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대독 예정																								
기조 발표	11:30~12:30	60'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수산업 환경변화 및 전망 - John Lynham(하와이대학 교수)																								
오찬	12:30~14:00	90' ◦고려원																								
발표	14:00~15:00	20' ◦미 실행정부 출범이 한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Theresa Greaney(하와이대학 교수)																								
		20' ◦미 실행정부 출범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20' ◦수산 분야 신통상 규범(환경, 노동) 변화에 따른 남태평양 입어 정책 변화와 국내 원양어업의 대응 방향 -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종합 토론	15:00~16:30	90' ◦좌장 : 김성진 / 前해수부장관 등 ◦토론자 : KM 대표단, 하와이대학 교수 등 종합토론																								
수행결과	□ (오전·오후) KMI-하와이대학교(UH) 세미나																									
	○ 발표 내용																									
	[발표 1]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수산업 환경변화 및 전망 (John Lynham, 하와이대학 교수)																									
	· 트럼프 2.0 시대 전망: 트럼프 정부 1기 정책(해양보호구역 개방, 환경 규제 완화)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수산업 관련 행정부(예: NOAA)의 예산 삭감																									
	· 해양보호구역 일부 재개방, 국내 수산업 생산 촉진(세금 감면 등),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예상																									
	· 오바마 정부 시절 해양 보호구역 지정 → 트럼프 1기 시절 일부 개방 → 바이든 정부에서 재보호 → 향후 재개방 가능성 존재. 보호구역 개방으로 단기적 어획량 및 수익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 지속가능성 불확실																									
	· 미국의 국제 수산 규제 영향력이 약화하며, 글로벌 수산업 관리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지역 수산기구(RFMOs) 참여 감소: 미국의 영향력 감소 →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 예상																									
	· 미국 시장 내 프리미엄 캐 수산물 시장 성장 가능성 높음. 건강 및 지속가능성 트렌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맞춰 고품질, 친환경 캔 수산물 수요 증가

- 한국은 고품질 수산물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친환경 포장 기술을 활용하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진출 가능

[발표 2] 미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Theresa Greaney, 하와이대학 교수)

- 한미 교역 현황: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한국의 비중은 크지 않음
- 트럼프 2.0 시대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mercantilism)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방향: 보호무역주의 강화 → 쌍무적 무역적자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무역장벽 적용 가능성. 트럼프는 국제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며,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국가 이익이라고 판단. 한미 FTA(KORUS)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조정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 있음. 기존 WTO 및 FTA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규제 강화
- KORUS FTA의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한국이 미국 수출 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관세 장벽 등 다른 조치가 강화될 우려 있음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 계획: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음
- 미국 내 철강·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한국은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공급국(2024년 기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길 가능성 있음
- 한미 수산물 무역 변화: 한미 FTA 덕분에 미국산 수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비교적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수산물에는 여전히 할당 관세 적용 중
- 트럼프 1기 무역전쟁 영향: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도 간접적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 소비자들 대부분이 관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다자간 무역 질서 약화 가능성: 미국이 WTO 및 국제 무역협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교역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음
- 공급망 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 한미 FTA가 있어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2기 시 한국의 대응 전략 필요: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발표 3] 미 신행정부 출범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 연구본부장)

-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글로벌 무역과 한국의 해양·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고율 관세 부과, 해양환경 규제 완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변화 요소임
- 한국은 세계 5위의 해양 강국으로, 수출입의 99.7%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산물 수출도 32억 달러 규모에 달함. 특히 김 산업은 1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 해양·수산업 교역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미국은 한국의 3대 수산물 수출 시장이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환경 및 해양 규제 완화는 국제적인 기후 대응 노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과 해양환경 규제 완화는 국제 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의 해양안보 전략 변화는 한국의 해운 및 물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와 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변화가 주요 변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율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해운 물동량 변화가 예상됨. 컨테이너 물동량은 감소하는 반면, 탱커 및 원자재 화물 증가 가능성
 -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한국 기업들은 시장 다변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함.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유럽·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이 중요
 -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미국의 '존스법(Jones Act)'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미 의회가 해외 건조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발표 4] 수산 분야 신통상 규범(환경, 노동) 변화에 따른 남태평양 입어 정책 변화와 국내 원양어업의 대응 방향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 원양어업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글로벌 수산업 노동자는 약 3,900만 명이며, 그중 200만 명이 강제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주요 국제 노동 협약들이 수산업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ILO C188 (2007), UN 세계인권선언, PSMA(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WCPFC 노동기준 결의안(2018) 등
 - 어업 관할권의 복잡성이 정책 시행을 어렵게 만들. 기국(Flag State), 연안국(Coastal State), 항만국(Port State), 시장국(Market State) 간 규제 차이 존재
 - FFA가 '통합 최소 기준'(MTCs)을 도입하여 노동 계약, 임금 보장, 불법 환적 금지 등을 강화함. 항만국 조치(PSMA)를 통해 강제노동 연관 선박의 입항 거부 가능
 - EU 및 미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수입 규제를 강화함. EU의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 미국의 SIMP(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용
 - WCPFC는 2020년 이후 노동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 중이며,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가 노동기준 논의를 주도하지만 중국이 규범 마련에 대한 반대를 표시함
 -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 위험이 존재함. 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요 시장(EU, 미국)에서 수출 제한 가능성
 - 한국의 현행 원양어업 규제는 ILO C188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노동 조건 감시 및 집행 시스템이 미흡함. 어업과 노동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접근을 위한 명확한 기제 부족
 - 한국은 국제 노동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조정 및 산업 적응 전략이 필요함. 선박 감시 시스템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적 소싱 강화.
 -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여 노동기준 준수 및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임
- [토론 1] 장영태 인하대학교 교수
- 보호구역 개방 후에도 어획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해양 보호구역과 국립 기념물(Monument)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한국 수산업, 해운업, 조선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한국 원양어업은 국제 노동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노동 정책 개선 및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필요.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 있음.
- [토론 2] 김성진 前해수부장관
- 트럼프 행정부 2.0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의 수산업, 해운업, 조선업 및 무역 환경이 변화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 비관세 장벽 강화로 대미 수출기업들은 환경·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므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해운업과 조선업도 공급망 다변화와 친환경 선박 개발이 중요해졌기에 전략적 투자가 요구됨. 국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노동 기준 준수가 무역 리스크 감소에 필수적이었으므로 원양어업 개선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음. AI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대응이 강화되었으므로 무역 변화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예측이 요구됨

[토론 3]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

- 미국이 지역 수산 기구(WCPFC, IATTC) 지원을 줄이면 중국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큼
- 태평양 도서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어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

[토론 5] John Lynham 하와이대학 교수

- 해양 보호구역(MPA)은 보호 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활동(예: 관광, 제한적 어업)이 허용될 수 있음. 국립 기념물(Monument)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정 및 해제 가능하지만, 해양 보호구역(National Marine Sanctuary)은 의회의 승인 필요
- (한국 수산업이 미국 보호주의 정책 대응 방향)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와 MSC 등 국제 인증 확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 필요, 미국 내 협력 업체 및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함
- 미국이 국제 협력을 축소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음. 한국 원양어업 선단이 태평양 보호구역 근처에서 어획량 증가(스필오버 효과)의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보호구역 유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음
- 국제 규제 준수를 위해 노동 정책 업데이트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글로벌 노동기준 준수 필요

[토론 6] Theresa Greaney 하와이대학 교수

- 한국 수산업은 미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이므로, 환경 및 위생 기준 강화, 비관세 장벽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이 동맹국과의 조산업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나, Jones Act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중국 무역 갈등 심화 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 FTA의 효과는 기존 협정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평가해야 하며, 다자간 무역 저항(Multilateral Resistance) 개념을 적용해야 함

[토론 7] Kazumi Wakita(Tokai University 교수)

- 소비자들은 '행복한 어부'(Happy Fisherman) 이미지가 있는 제품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일본에서는 어부의 얼굴을 패키지에 넣어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 한국과 일본이 노동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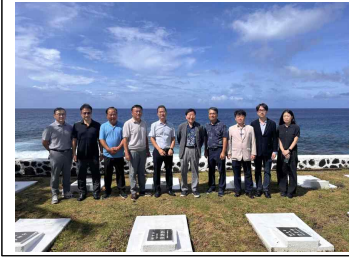


업무②

02.25.(화) KMI-EWC 협력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계획	□ (오전) KMI-EWC 협력논의 - 참 석 자 : EWC, 김민수 선임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서기) 등 - 업무 협의 내용 · 협력 수요 논의, 공동연구 주제 및 추진 방법 등 논의 □ (오후) 호놀룰루 → 아메리카 사모아 이동
수행결과	□ (오전) KMI-EWC 부총장 면담 및 협력 논의 · (트럼프 2기 출범 해양수산 이슈 논의)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호루무즈 해협, 북극,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025년은 글로벌 해양 이슈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는 미 해군(Navy)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및 일본과의 조선 산업 협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동맹국들과의 해양 협력(안보 및 상업적 측면) 강화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보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업 및 조선 산업의 대미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함. 항만 이용료 인상 등 무역장벽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만 해협, 동아시아, 남중국해 등 주요 해양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화 예상 ·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 대신 "에너지 회복력(Energy Resilience)", "자연자원 회복력(Natural Resources Resilience)"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조정 중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KMI-EWC 협력 논의) EWC-KMI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해양 정책 및 국제 규범 관련 논의를 확대해야 함.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업무③	02.26.(수) 선원묘지 참배, 아메리카 사모아 수산청 간담회, 스타키스트 공장 방문
수행계획	□ (오전) 선원묘지 참배 - 참 석 자 : 오시영 수산관, 아메리칸사모아 한인회(권택용, 박종춘, 최영권, 장지인, 박종삼, 김동익, 기병인, 허성림, 박현정, 윤현철), 하인주 스타키스트 공장장, 서준호 스타키스트 차장, Edmund Kim 스타키스트 매니저, 김민수 선임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서기), 김성진 前해수부장관 등 - 업무 협의 내용 · 선원 묘지 참배 □ (오후) 스타키스트* 공장 방문 - 참 석 자 : 스타키스트 하인주 부장, 서준호 차장 등, 김민수 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서기), 김성진 前해수부장관 등 - 조사 내용 · 스타키스트 운영 실태 및 운영 전반 및 애로사항 등 조사 *스타키스트(StarKist)는 미국 피츠버그에 거점을 둔 수산 기업으로, 동명 브랜드의 참치 제품으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40%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임. 2008년 대한민국의 동원그룹이 델몬트 푸즈로부터 인수한 이후, 현재는 동원그룹이 소유, 생산공장은 아메리카 사모아에 위치
수행결과	□ (오전) · 아메리칸사모아 제1 한국선원묘지(Futinga), 제2 한국선원묘지(Vailoa), 제3 한국선원묘지(Satala)를 참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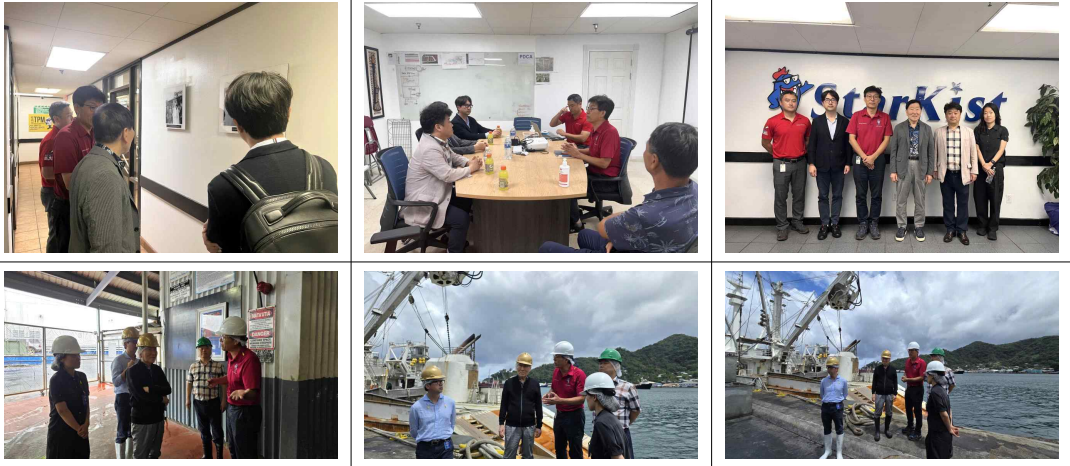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후)

- 스타키스트(Starkist)는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운영되는 참치 가공 공장으로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루 220톤의 참치를 가공하며, 약 2,200명의 직원이 근무함. 공장 규모는 약 12,000평에 달하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6달러 수준임. 냉동 보관 능력은 11,000톤이며, 하루 400톤의 참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 연간 4회에 걸쳐 정기적인 섯다운이 이루어짐
- 스타키스트는 2008년 동원그룹이 3,700억 원에 인수하기 전까지 하인즈(Heinz)와 델몬트(Del Monte) 소유였으며, 당시 적자 상태였음. 그러나 동원그룹은 인수 후 원료 구매 방식을 최적화하고, 연간 150억~200억 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인수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함. 현재 스타키스트는 북미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인 범블비(Bumble Bee)가 피지와 태국에서 원료를 구매해 LA에서 가공하는 방식과 달리, 스타키스트는 인근 해역에서 직접 원료를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음.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게 됨
- 특히 스타키스트는 미국령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참치 가공 공장으로서, 미군 납품 및 단체 급식 공급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군납과 단체 급식의 경우 미국 국적선에서 조달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스타키스트는 11척의 미국 국적선에서 원료를 구매함. 또한 동원 소유 선박 3~4척도 주기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생산 공정 측면에서는 항구의 수심이 10m에 이르러 대형 선박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양륙된 참치는 즉시 냉동 보관됨. 이후 해동 과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해 0°C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선도를 최적화하고 있음. 품질 관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FDA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트레이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 스타키스트는 아메리칸 사모아 외에도 에콰도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약 1,5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매출 규모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④	02.27.(목) 현지 업계 간담회 개최 및 이동
수행계획	□ (오전) 아메리칸사모아 수산청 방문 - 참 석 자 : H.Hanipala, Domingo Ochavillo, Seaina Tuimaure, Tim Jones, Taulapapa William A. Sword, Archie Soliai, 김민수 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서기),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등 · 아메리카 사모아 수산업 현안 및 실태 파악 · 수산 분야 주요 인프라 현황 및 투자 계획 파악 · 한-아메리카 사모아 협력 분야 파악 □ (오후) 현지 한인 업계 간담회 개최 - 참 석 자 : 스타키스트 하인주 부장, 서준호 차장 등 현지 업계 관계자, 김민수 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서기),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등 - 간담회 내용 · 현지 업계 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 (오후) 아메리카 사모아 → 호놀룰루 이동
수행결과	□ (오전) · (미국령 사모아 어업 현황) 과거에 비해 어선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규제 강화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업이 위축됨. 중국 선단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이 원활하지만, 미국 선단은 운영 부담이 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보조금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 ·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태평양 참치 자원의 이동 경로가 동쪽으로 변화하고 있음. 수온 변화뿐만 아니라 심층 해류의 변화도 수산자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됨. 현재까지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중국 선박의 증가 및 IUU 어업 문제) 중국의 다크 플릿(dark fleet)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한국, 미국령 사모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IUU 어업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요성) 어업 규제는 산업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규제 방식이 어업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한-아메리칸사모아 협력 방안) 수산 경제 및 정책 연구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해 어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후)

- 아메리칸사모아 한인회는 약 100명의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수리, 식당 경영, 식품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음. 어업 종사자는 1명으로 선망 조업을 하고 있음.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아메리칸 사모아는 한국 원양어업의 핵심 기지로 활용되었으며, 당시 많은 한국 선박이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조업을 진행했음. 선원들의 보급 및 선박 수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한인 거주 인구도 약 만 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음. 그러나 이후 원양어업이 줄어들면서 아메리칸 사모아의 역할은 축소되었음. 현재 아메리칸 사모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키스트를 중심으로 한 참치 가공업과 관련된 사업에 일부 관여하고 있음.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과의 어업 협력 및 관련 산업의 규모는 크게 줄어든 상태임



업무⑤ 02.28.(금) 하와이 동서문화재단(EWC) 총장 면담, KMI-EWC 2025 NPAC 준비위원회 개최

- | | |
|------|--|
| 수행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동서문화재단(EWC) 총장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Suzanne Puanani Vares-Lum 총장, Charles M. Morrison 박사(EWC), 김민수 연구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서기),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등 -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EWC 2025년 연구협력의정서 체결 협의 · NPAC 개최 포함 2025년 KMI-EWC 협력이슈 논의 · 태평양 도서국 수산 및 기후변화 현안 논의 □ KMI-EWC 2025 NPAC 준비위원회 개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Charles M. Morrison 박사(EWC), Oran Young(UC 산타바바라 명예교수), Malgorzata (Gosia) Smieszek-Rice(노르웨이 UiT 대학 교수) 등 NPAC 준비위원회 위원, 김민수 연구위원,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NPAC 준비위원), 마창모 선임연구위원, 오서연 전문연구원 <p>* 현지 참석 준비위원 외 온라인 참석(하이브리드 개최)</p>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회의 내용 · 2025년 NPAC 개최 일시, 의제 및 발표토론자 선정
수행결과	□ (오전&오후) 2025 NPAC 준비를 위한 주요 논의 주제 검토 및 역할 분담 · 북극 해양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빙 감소, 북극 증폭, 해류 변화 등) · 국제 북극과학위원회(IASC) 및 정책결정자와의 연계 방안 검토 · 북극 항로(특히 북극해 항로)의 상업적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및 한국의 북극 항로 활용 전략 및 관련 정책 연구 필요 확인 · 지정학적 요인(러시아-서방 갈등, 대체 항로 문제 등)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 KMI-EWC 공동연구 작성 추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IASC, Arctic Council 등과의 연계), 2025 NPAC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세션 기획, KMI의 북극 연구 역량 강화 및 정책 자문 역할 확대

[별첨1] 방문 기업 소개자료

About StarKist Co.



StarKist Co. provides trusted, healthy food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An industry innovator, StarKist was the first brand to introduce single-serve pouch products, which include Tuna Creations®, Salmon Creations® and Chicken Creations®. As America's favorite tuna, StarKist represents a tradition of quality, consumer trust and a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StarKist's charismatic brand icon, Charlie® the Tuna, swam into the hearts of tuna fans in 1961 and remains a fan favorite today. StarKist Co. is a direct wholly owned subsidiary of Dongwon Industries Co., Ltd.

Company History

Our corporate headquarters are located at:
1875 Explorer Street, 10th Floor
Reston, Virginia 20190

Our facility locations include:
Pago Pago, American Samoa
Guayaquil, Ecuador

StarKist's Parent Company, Dongwon Industries



Dongwon Industries was founded in April 1969 to explore the ocean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company has led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spanning the five oceans, and changing customers' dietary lives with fresh seafood products. Dongwon Industries operates 42 vessels, including the world's largest purse seine fleet. It delivers high-quality tuna to customers through differentiated processing technology, and is the global leader in sourcing and processing salmon, along with various other seafood products. Dongwon Industries also has a presence in the cold storage service.

Our President & CEO

Young Choi, President & CEO



Mr. Young Choi is President & CEO at StarKist Co. and joined the company in May 2022. Prior to his current position, he played key roles as the Vice President of Finance, Chief Operating Officer (COO), and Chief Financial Officer (CFO) within the company.

Before joining StarKist, Choi held various finance executive positions with SPC Group and Tesco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from December 2007 to April 2022. Prior to that, Choi worked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for Deloitte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1998 to November 2007.

© 2023 StarKist Co. All rights reserved. Dongwon Industries Co., Ltd.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ongwon Industries Co., Ltd.



Sriracha Tuna Ramen Noodle Soup



Caribbean Tuna Salad



StarKist Lunch-To-Go® Tuna Creations®
Deli Style Tuna Salad Snack



Hickory Smoke Tuna Enchiladas

KMI-UH 공동세미나 및 아메리칸사모아 방문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수산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수산물 무역 대응 방향 마련을 위한 세미나 및 현지 업계 간담회 추진

2 주요 행사 및 참석자

- (주요 행사) KMI-UH(하와이대학) 공동 세미나, 스타키스트 방문, 아메리카 사모아 수산청 방문, 간담회, 순직원양 선원묘지 참배 등
 - (참석자)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동원산업 및 스타키스트 관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민수 본부장, 마창모 본부장, 오서연 전문연구원 외
- ※ 선원묘지 참배 및 업계 간담회를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 공지 및 행사 준비 요청

3 일정표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5. 2. 24.	KMI-UH 공동세미나	하와이대학
'25. 2. 25.	KMI-UH 공동연구 등 협의	하와이대학
	이동(HNL-PPG)	
'25. 2. 26.	선원묘지 참배	아메리칸사모아
	아메리칸사모아 수산청 방문	아메리칸사모아
	스타키스트 공장 방문	아메리칸사모아
'25. 2. 27.	현지 업계 간담회	아메리칸사모아
	이동(PPG-HNL)	
'25. 2. 28.	하와이 동서문화재단(EWC) 총장 면담 KMI-EWC 2025 NPAC 준비위원회 개최	하와이대학 EWC

[별첨3] KMI-EWC NPAC 준비위원회(steering committee) 의제

* 2011년부터 개최해온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NPAC) 준비를 위해 매년 2월 하와이에서 준비위원회 개최

* 위원: Oran Young(미), Robert Corell(미), Lawson Brigham(미), Bernard Funston(캐), David Vanderzwaag(캐), Arild Moe(노), Malgorzata (Gosia) Smieszek-Rice, Yang Jian(중), Tatiana Mitrova(러), Natsuhiko Otsuka(일), 김종덕, 김성진, 김민수(한)

NPAC 2025

Preliminary Concept Note

The Future of the Maritime Arctic

Viewed from the top down, the core of the Arctic is a large marine system composed of the Arctic Ocean proper together with a collection of regional seas, including the Bering Sea in the North Pacific Arctic and the Greenland Sea and the Norwegian Sea in the North Atlantic Arctic (see Figure 1). Given our tendency to focus on inter-state or inter-national relations, we habitually think of regions (e.g. Europe,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in terrestrial terms and direct attention to issues of membership construed as a matter of including or excluding specific states. But this way of thinking overlooks cases like the Caribbean Region and the South Pacific Region as well as the Arctic Region that are better understood as large marine systems. In such cases, there is much to be said for organizing our thinking in terms of marine perspectives in contrast to terrestrial perspectives.

Long regarded as an area of interest primarily to explorers interested in testing the limits of their endurance under extreme conditions and more recently to military planners concerned with behind the scenes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s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he maritime Arctic has seldom generated concerns that make their way to the top tier of issues appearing on public policy agendas. Today, this situation is changing rapidly for reasons ranging from the role of the Arctic Ocean in the Earth's climate system to the growth of maritime commerce in the Arctic and increases in the deployment of warships in Arctic waters.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maritime Arctic has emerged as a prominent concern not only for policymakers in the so-called Arctic states but also for policymakers in a wide range of other states.

NPAC 2025 will explore the future of the maritime Arctic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dividual sessions will address the following themes:

1. The Arctic Ocean in the Earth's climate system. Key issues in this realm include both progressive developments (e.g. the loss of sea ice, Arctic amplification, the Atlantification of Arctic seas, shifts in the abundance and distribution of marine organisms) and non-linear events (e.g. sudden shifts in the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or AMOC). How can the international science community engage in collaborative research initiative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se processes? What i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n this realm? What are the most effective ways to engage the science community and the policy community in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these matters?

2. The future of Arctic maritime commerce.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potential

for through shipping in contrast to destination shipping in the Arctic is limited for the foreseeable future. Yet, political problems hampering alternative routes (e.g. the Suez Canal route) are becoming severe; a Panamax container ship made it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en route from Europe of China in record time in September 2024. What can we say about the future of maritime commerce in the Arctic at this stage? Will the growing conflict between Russia and the West limit or enhance such commerce?

3. Arctic maritime boundaries and jurisdiction. There are numerous unresolved jurisdictional issues in the Arctic, including the overlapping claims of Canada, Denmark/Greenland, and Russia to jurisdiction over parts of the seabed in the Arctic Ocean,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 as a non-member of UNCLOS to submit a claim to seabed jurisdiction in the Arctic Ocean,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Beaufort Sea, the status of Norwegian jurisdiction in waters surrounding the Svalbard Archipelago, and disagreement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west Passage and several straits in the Russian Arctic under the terms of UNCLOS Art. 37. Are any of these issues ripe for resolution at this time? Will their continued existence hinder the activities of those interested in various uses of the Arctic Ocean?

4. The militarization of the maritime Arctic. Citing developments like Russian naval exercises, the deployment of the reactivated U.S. 2nd fleet in northern Europe, and the presence of Russian and Chinese warships in the Bering Sea, some analysts have concluded that we are witnessing a significant militarization of the maritime Arctic. In support of this view, they often articulate a geopolitical narrative envisioning a growing role for the maritime Arctic as an important arena for the exercise of great power politics. To what extent is this narrative persuasive? Is the real concern localized to specific areas, such as the Barents Sea, rather than to the maritime Arctic as a whole?

5. The well-being of coastal communities. Coastal communities in the maritime Arctic are affected by these developments both in biophysical terms (e.g. coastal erosion forcing communities to relocate, changing sea ice conditions impeding subsistence activities) and in socioeconomic terms (e.g. the sudden arrival of ship-based tourists, pressures to improve port facilities to handle naval vessels). How can communities respond effectively to these forces? What are the obligations of outsiders (e.g. tour operators, countries of origin of Arctic tourists) to recognize these impacts and take steps to assist affected communities?

6. Governing the maritime Arctic. Taken together, these developments present a range of ongoing concerns relating to governance. Some of these concerns focus on efforts to implement existing arrangements pertaining to specific issues (e.g. the Central Bering Sea Pollock Convention,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the polar bear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e whaling convention pertaining to artisanal subsistence harvesting, the search and rescue agreement, the Polar Code dealing with Arctic shipping). Others have to do with strengthening or enhancing existing arrangements to cover new issues (e.g. adding provisions to the Polar Code to address issues like ship strikes on marine mammals or underwater noise pollution). Still others center on applying global arrangements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maritime Arctic (e.g.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BBNJ agreement in the Arctic). A particular focus of interest features the need to coordinate the various elements of the Arctic Ocean governance complex. What are the proper venues for addressing issues of governance relating to the maritime Arctic? Is the inability of the Arctic Council to operate effectively under current conditions a cause for significant concern in this regard?